

에 의한 狹窄에 對하여 過去 여러가지 療法이 있었다. 即 保存的 治療法과 手術的 治療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最近에 注目되고 있는 Silicone T-tube은 氣道를 適切히 維持하고 再建한 氣管을 支撐하여 주기 위해서 考案된 것이다.

最近에 著者들은 2例의 喉頭 및 氣管外傷 患者와 9個月 間의 氣管 Cannula 拔去困難症 1例에 對하여 Silicone T-tube를 使用하여 좋은 結果를 얻었기에 文獻的 考察과 함께 報告하는 바이다.

— 7 —

興味있는 異物例

釜山메리놀病院

朴玉姬 · 金基柱 · 金皓星 · 曹重煥

興味있는 異物 5例를 治驗하였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症例 1: 7歲男兒에서 Tracheostomy outer cannula 管이 삭아 부러져서 Rt. main bronchus에 들어있었던 例.

症例 2: 51歲 男子 trachea에 걸쳐 있었던 漢醫 鍼灸用 針.

症例 3: 10個月 女兒의 食道第二狹窄部에, 입밖까지 실 달린채로 걸려 있었던 낚시 바늘.

症例 4: 16歲 男子의 食道第三狹窄部에 끝(尖端)이 위로 向해 열려있었던 安全 pin.

症例 5: 20歲男子에서 큰 獵銃총알이 Rt. mastoid process 밑을 通하여 Rt. mastoid process와 foramen magnum(skull base) 中間點에 있는 것을 觀血的으로 除去하였다.

— 8 —

術後性 Anterior Glottic Web의 治驗例

高麗醫大

徐雄彬 · 金鍾民 · 柳洪均

喉頭의 Anterior glottic web에 對한 手術的 治療 方法은 1924년 Haslinger가 처음으로 Web의 成功的 인 Correction例를 報告한 이래 1935年 Iglauer, 1950

年 Mc Naught, 1969年 Pennington, 1970年 Montg-omery 등이 자기 다른 治療法을 소개하였으나 그 治療 目的이 前連合部의 上皮化와 同時에 Denuded Vocal Cord에 形成되는 肉芽를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 著者等은 最近 咽頭乳頭腫 3例에서 2~3回의 除去術後에 유발된 Anterior glottic web를 경험하여 Stainless steel plate를 利用한 Keel을 제작하여 使用한 結果 만족할 만한 結果를 얻었기에 문헌적 高찰을 가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 9 —

食道부식증의 임상적 高찰

한양의대

박철원 · 송기준 · 이형석 · 안경성 · 김선곤

각종 부식제에 의한 食道부식증은 근래에 들어서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자살수단으로 택하거나 오연으로 인하여 적지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부식제의 종류도 다양하여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食道부식증은 그 경과에 있어서 連續적으로 발생하는 食道협착증의 방지가 治療의 重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1972년 5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食道부식증 환자중 발병시부터 치유될때까지 전 과정의 임상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월별빈도, 음독동기, 약물종류, 음독후 내원시간, 구강 및 인두 粘膜變화, 검사소견, 응급처치 및 입원후 治療, 治療성적, 합병증 등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 1) 성별비는 1.13 : 1로 女자가 약간 많았으며, 남자가 24례(47.1%), 女자가 27례(52.9%)이었다.
- 2) 연령분포는 21~30세가 20례(39.2%)로 가장 많았고, 11~20세가 11례(21.6%), 31~40세가 7례(13.7%), 50세 이상이 7례(13.7%)의 순이었다.
- 3) 월별빈도는 3월이 8례(1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월과 7월이 각각 7례(13.7%), 9월 6례(11.8%), 10월 5례(9.8%)의 순이었다.
- 4) 음독동기는 자살목적이 40례(78.4%)로 主종을 이루었고 사고에 의한 오연이 11례(21.6%)이었다.
- 5) 약물종류로는 초산이 24례(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염산 11례(21.5%), 加性소다 8례(15.7%), 옥도정기 2례(3.9%)의 순이었다.

— 5 —

6) 음독후 내원시간은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가 12례(82.4%)이었고, 다음이 12~24시간내 4례(7.8%)이었다.

7) 구강 및 인두점막변화는 충혈 및 부종이 있는 중등도가 20례(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궤양이 동반된 18례(35.3%), 충혈만 있는 10례(19.6%)의 순이었다.

8) 검사소견은 혈액검사소견상 40례(78.4%)에서 백혈구증가를 보였으며, 31례(60.8%)에서 혈구용적비(Hct)증가를 보였다. 뇨검사상 14례(27.5%)에서 Specific gravity가 1.030이상 이었고, 25례(49.0%)에서 간백뇨를 보였으며, 5례(9.8%)에서 당뇨를 보였고, 6례(11.8%)에서 혈뇨를 보였다.

9) 응급처치로는 위세척을 시행한 예가 30례(58.8%)이었고, 3례(5.9%)에서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10) 치료방법으로는 전체 51례중 50례(98.0%)에서 Levin tube를 삽입하였고, 49례(96.1%)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46례(90.2%)에서 제산제 및 Steroid를 사용하였다.

11) 치료후 36례(70.6%)에서는 별다른 합병증없이 유효한 치료결과를 보였고 2례(3.9%)는 입원당시 사망하였으며, 4례(7.8%)에서 식도협착을 보였고, 1례(2.0%)에서는 위유문부협착을 보였다.

12) 합병증은 8례(15.7%)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중 신부전증이 4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폐렴, 상부 위장관출혈 등이었다.

— 10 —

### 부식성 식도염에 관한 임상적 고찰

연세의대

(지도:김기형)

이원상·정승규·최홍식·김상기·김광문·홍원표

근래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독, 극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인식도 개선됨으로써 부식성 약물을 오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정서 생활의 부조화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고자 연하하는 경우는 아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연하하는 부식제의 종류도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다양해지고 있다.

식도 부식증에 관하여는 각종 산성(Pitkin, 1935

Carmody, 1936) 및 알카리성(Tree, 1942, Tucker, 1951) 부식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착증에 대해서는 Salzer(1920), Bokey(1924) 등이 조기 확장법을 주장한 이후 Spain(1950)에 의해 Cortison의 투여 효과가 소개되었고 또한 항생제의 동시 투여로 그 치료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못지않게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이러한 시도가 최근의 추세라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1971년부터 1981년 3월까지 10년 3개월간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가료한 부식성 식도염 환자 96명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빈도는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 1.7이며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가 3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2) 약물을 먹은 동기는 자살 목적이 80명(83.3%), 사고의 경우는 10세미만이 9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3) 약물은 빙초산 41명(41.8%), 가성소다 20명(20.4%), 염산 17명(17.3%)의 순이었으며 연도별 빈도를 볼때 가성소다의 경우는 감소하였으나 산성부식제 특히 빙초산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4) 위세척을 한 경우는 57명(59.4%)으로 대부분이 조기 도착한 경우였다.

5) 대부분에서 Nasogastric tube를 삽입하였으며(83.3%), 삽입하지 않은 16명(16.7%)은 늦게 내원이 10명, 삽입 실패 4명, 기타 2명이었다.

6) 기관절개술이 요구된 경우는 호흡기장애가 있었던 17명(17.7%)이었으며 분비물의 축적이 6명(35.3%), 상기도폐쇄가 11명(64.7%)이었다.

7)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한 11명(11.5%)중 48시간이내가 6명(54.5%)으로 가장 많았다. 조기 식도경 검사 결과; 점막에 중증도의 궤양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점막의 종창과 부식 정도가 비교적 경하였던 6명(54.5%)은 입원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곧 경구 음식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가료가 필요했던 중(重)중의 경우 그 입원 일수는 평균 4주간이었다.

8) 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22명중 Nasogastric tube를 넣은 기간은 평균 11.6일 이었으나 최근에는 tube를 삽입하여둔 기간은 대체로 입원 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 Clinical Study of Corrosive Injury of the Esophagus

Chul Won Park, M.D., Ki Joon Song, M.D.,  
Hyung Seok Lee, M.D., Kyung Sung Ahn, M.D.,  
Sun Kon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Han Yang University*

There are too many kinds of esophageal corrosive agents, such as sodium hydrochloride, acetic acid, hydrochloric acid, etc.

Esophageal burn due to above chemical agents are decreasing recently, but still many patients visited to the hospital because of swallowing corrosive agents for the purpose of suicide or accidentally. Among the treatment of corrosive injury of the esophagus, prevention of esophageal stricture is the key point. Recently various methods are using as the treatment of corrosive esophagitis and prevention of esophageal stricture.

51 cases of corrosive injury of the esophagus who had been admitted and treated at the Dept. of Otolaryngology, Han Yang University Hospital during past 9 years (from May 1972 to Dec. 1980) were evaluated and report the result about age distribution, sex incidence, monthly distribution, cause of swallowing, swallowing agents, arriving time at hospital after swallowing, changes on oral and pharyngeal mucosa, laboratory findings, emergency treatment and treatment during admission, treatment follow up results and complications with review of literatur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Female patients 27 cases(52.9%) were more than male patients 24 cases(47.1%) and its ratio was 1.13:1.

2. Age distribution showed predilection

for age of 21-30 with 20 cases(39.2%), and 11-20 with 11 cases(21.6%), 31-40 with 7 cases(13.7%), over 50 with 7 cases(13.7%) were following.

3. Monthly distribution showed predilection for March with 8 cases(15.7%), and April, July with 7 cases(13.7%), September with 6 cases(11.8%), October 5 cases(9.8%) were following.

4. For the purpose of suicide was the most cause of swallowing with 40 cases(78.4%), and accidentally swallowing 11 cases(21.6%).

5. Acetic acid was the most swallowing agent with 24 cases(47.0%), and hydrochloric acid 11 cases(21.5%), lye 8 cases(15.7%), iodine 2 cases(3.9%) were following.

6. Arriving time at the hospital after swallowing showed predilection for within 12 hours with 42 cases(82.4%), and from 12 hours to 24 hours with 4 cases(7.8%) was next.

7. Moderate change with injection and swelling was the prevalent change on oral and pharyngeal mucosa with 20 cases(39.2%) and severe cases with ulceration 18 cases(35.3%), mild cases with injection 10 cases(19.6%) were following.

8. Leukocytosis was seen on 40 cases(78.4%), and increased Hct. was seen 31 cases(60.8%). On urine analysis, 14 cases(27.5%) showed over 1.030 S.G., and proteinuria was seen on 25 cases(49.0%), glycosuria was seen on 5 cases(9.8%) and hematuria was seen on 6 cases(11.8%).

9. Gastric lavage was done on 30 cases(58.8%) as emergency treatment and on 3 cases(5.9%) tracheostomy was done for the airway keeping.

10. As methods of treatment during admission, L-tube insertion was done on 50 cases(98.0%), antibiotics was given to 49 cases

(96.1%), steroid and antacid were given to 46 cases(90.2%).

11. 36 cases(70.6%) were in favorable condition after proper treatment, but 2 cases (3.9%) were expired during admission, 4 cases(7.8%) showed esophageal stricture in spite of treatment, and 1 case(2.0%) showed pyloric stenosis.

12. Complications were observed in 8 cases (17.7%). Renal failure (4 cases), aspiration pneumonia (2 cases), upper G-I bleeding (1 cases), and diabetic coma (1 cases) were seen in order of frequency.

— 10 —

### Clinical Study of Corrosive Esophagitis

Won Sang Lee, M.D., Sung Kyu Chang, M.D.,  
Hong Shik Choi, M.D., Sang Ki Kim, M.D.,  
Kwang Moon Kim, M.D., Won Pyo Ho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people, there is an increasing awareness about the dangers of toxic substances and lethal drugs.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governmental control of these substances has led to a progressive decrease in the accidents with corrosive substances. However there are still sporadic incidences of suicidal attempts with the substances due to the unbalance between the cultural development in society and individual emotion. The problem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variety of corrosive agents easily available to the people due to the considerabl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Salzen(1920), Bokey(1924) were pioneers on the subject of the corrosive esophagitis and esophageal stenosis by dilatation me-

thod. Since then there had been a continuing improvement on the subject with researches on various acid(Pitkin, 1935, Carmody,1936) and alkali (Tree, 1942, Tucker, 1951) corrosive agents, and the use of steroid (Spain, 1950) and antibiotics. Recently, early esophagoscopy examination is emphasized on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way of the treatment in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s. In order to find the effective treatment of such patients in future, the authors selected 96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s who were admitted and treated at the ENT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from 1971 to March, 1981 to attempt a clinical study.

#### <Results>

1. Sex incidence.....male: female=1 : 1.7, Age incidence.....21-30 years age group; 38 cases(39.6%).

2. Suicidal attempt.....80 cases(83.3%), Accidental ingestion.....16 cases(16.7%). Among those who ingested the substance accidentally, children below ten years were most numerous with nine patients.

3. Incidence acetic acid.....41 cases(41.8%), lye...20 cases(20.4%), HCl.....17 cases (17.3%). There was a trend of rapid rise in the incidence of acidic corrosive agents especially acetic acid.

4. Lavage.....57 cases(81.1%).

5. Nasogastric tube insertion.....80 cases (83.3%), No insertion.....16 cases(16.7%), late admittance.....10 cases, failure...4 cases, other.....2 cases.

6. Tracheostomy.....17 cases(17.7%), respiratory problems(75.0%), mental problems (25.0%).

7. Early endoscopy.....11 cases(11.5%), within 48 hours.....6 cases(54.4%).

Endoscopic results;

moderate mucosal ulceration...8 cases(72.7%), mild mucosal erythema.....2 cases(18.2)